

디지털 통합대장경 나온다

고려대장경 12월 '구사론' 등 시연... "팔만대장경 가치 높이는 계기"

한국, 일본, 미국, 영국, 인도 등 10여 개 나라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대장경 관련 전산화 작업의 성과를 하나로 엮는 21세기 전자대장경 결집시대가 열렸다. 고려대장경연구소(소장 종립) 지난 4월 '통합대장경 연구팀'을 구성하고, 다언어 경전을 마음대로 열람할 수 있는 디지털 통합대장경 제작에 들어갔다. <관련기사 9면>

이에 따라 연구소는 세계 불교학계에서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있는 <구사론> <설대승론> <성유식론> <무량수경> <금강경> <대승기신론> <전대사교의> 등 8종의 한글·한문·산스크리트어·티베트어 경전을 우선 선정·제작하고, 12월 6일 올림픽 펜싱경기장에서 열리는 팔

만대장경 CD 봉정식에서, 이들 경전에 대한 시연회를 가질 계획이다. 이들 경전은 '의미' '키워드' 등에 따라 최소 정보단위로 나누는 '마크업' 과정과, 하나의 경전을 중심으로 다른 언어로 쓰여진 동일한 경전들을 서로 연결하는 '링킹' 과정을 거쳐, 하나의 틀에서 자유롭게 호환하고, 검색·열람할 수 있는 '디지털 통합대장경'으로 탈바꿈한다. 현재 연구소는 <구사론>의 산스크리트어본(本), 티베트어본, 한문본, 한글본 등에 대한 '마크업' 과정과 '링킹'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대장경 전산화는 10여 년 전부터 국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오는 12월 팔만대장경 CD 발간을 필

두로 순차적으로 마무리된다. 그러나 이들 전산본은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언어의 텍스트로 진행된 탓에, '언어' '용어 프로그램' 등이 서로 달라 동시에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세계 불교학계가 97년부터 이들 전산본을 하나의 틀에서 상호 비교·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에 고심해 왔던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디지털 통합대장경'은 불교학자들의 바람을 실현한 '꿈의 대장경'일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 속에서 변모해 온 아시아의 불교를 한 눈에 꿰뚫어 볼 수 있게 하고, 인도학·중국학·동남아시아학 등 유관 학문의 기초 자료로도 이용될 전망이다.

종립(고려대장경연구소장) 스님은 "세계 최초의 통합대장경을 국내에서 만드는 것은, 세계 불교학계에서 소외되어 온 고려대장경의 학술적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더했다. 고려대장경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통합대장경은 불교학계에서의 고려대장경 활용 회수를 늘이는 전환점이 되기 때문이다.

한편 고려대장경연구소는 '디지털 통합대장경' 제작과 관련해, 12월경 대만, 태국, 일본, 미국 등이 참여하는 세계불교학술회의를 개최하고, 대장경 전산화 국제기구인 전자불전협약체(EBT)와도 협조 관계를 모색할 방침이다. 오종욱 기자 (gobaou@buddhopia.com)



스리랑카 불치사 박물관에 비로자나불 봉안

진각종(통리원장 성초)은 7월21일 스리랑카 캔디시에 있는 불치사 박물관에 성초 통리원장, 법현 종단협 사무국장, 우르레와에 아따다시 시암종 총무부원장, 송영오 주스리랑카대사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로자나불상(높이 1.2m)을 기증했다. 불치사는 부처님의 치아시리를 봉안하고 있는 스리랑카의 대표적인 사찰로 중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의 불상을 봉안하고 있다. 스리랑카=고영배 기자

남북불교도 8·15 동시법회 발원문(요지)

우리 불교도들은 조국광복 55돌이 되는 뜻깊은 오늘 남과 북의 모든 사찰에서 '민족의 자주와 단합, 조국통일기원 남북불교도 8·15 동시법회'를 가지고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앞당기려는 한결 같은 의지를 부처님전에 발원합니다.

민족의 자주는 우리 민족이 살아나갈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들은 나라의 통일문제도 그 주인공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보면서 그 실천행을 적극 펼쳐 나가겠습니다.

조국통일은 반드시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따뜻하게 감싸주는 것을 토대로 실현되어야 합니다. 반세기 이상 분열로 하여 우리나라의 북과 남에는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있습니다. 6월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바탕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육화(六和)의 정신에 따라 실질적인 조국의 통일을 이루기 위해 남과 북의 모든 불자가 적극적으로 앞장서겠습니다.

셋째, 서로의 신뢰를 다져나가는 것은 민족의 대단결과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절제입니다. 우리들은 아집과 사견으로부터 오는 온갖 번뇌망상과 집착심을 버리고 모든 것을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성업에 복종시키며 그 길에서 서로의 협력과 연대, 연합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북과 남의 모든 불교도들은 역사적인 6·15 남북(북남)공동선언 실현을 위해 굴함없이 용맹진전해 나가겠습니다. 조국과 후세 앞에 부끄럼없는 참다운 불제자, 통일보살이 되겠다는 것을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전에서 굳게 서원합니다. 나무썩기마모니불 나무썩기마모니불 나무시어본사 석가모니불

민족의 자주와 단합, 조국통일기원 남북불교도 8·15 동시법회 참가대중
불기 2544년(주체 89, 서기 2000) 8월 15일

사형폐지 특별법안 의원 76명 국회제출

불교인권위도 입법화 촉구

불교 등 종교계를 중심으로 사형제 폐지 운동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정대철 의원 등 여·야 의원 76명은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형법 등 각종 법률에 규정된 사형을 무기징역으로 대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을 7월28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형법 및 기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벌 중 사형을 무기징역으로 대체하고, 법원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를 선고할 경우에 범죄

'통일정책추진위 설치' 승인

태고종 78회 임시총회

태고종은 7월 26일 선암사에서 제78회 임시중앙총회(총회회장 남파)를 열고 '태고종 통일불교정책 추진위원회' 설치안과 지난해 결산 총액 18억2천여만원의 승인을 하는 등 4개 안건을 통과시켰다. 통일불교정책추진위원회를 중단

포교사단 전국 팀장 연수

조계종 포교사단(단장 김기병)은 8월 19일부터 20일까지 부산 합지골수련원에서 전국팀장 지도자연수회를 개최한다. '포교사단의 비전과 지도자 사명'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연수는 현재 팀장 및 앞으로 팀장의 역할이 예상되는 지역포교사단장 추천 포교사 그리고 임원 12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연수는 '리더십과 조직운영' '커뮤니케이션의 이해' '포교사단의 운영과 비전' '화합과 만남의 장' '포교와 포교사' 등의 강의 및 토론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김원우 기자

"동국대 교수임용 비리 조사"

종립학교 관리위

동국대 불교대학 교수임용 사안 관련,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에서 조사 방침을 밝혀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종립학교관리위 산하 종립학교발전연구 소위원장 영담스님은 7월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종립학교관리법에 따라 동국대에 인사비리가 있으면 종단에서 조사할 수 있다"며 "채용 과정을 지켜보고 비리가 있을 경우 후보부에 조사 의뢰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송석구 동국대총장은 25일 종립학교관리위에 출석해 "심사에 참여한 한 교수가 점수 합산을 다른 교수에게 위임해 실사를 다시 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정성운 기자(swjung@buddhopia.com)

中 외교 "달라이라마 방한 허용말라"

이 외무장관에 요청

중국이 7월26일 한·중 외무장관 회담에서 티베트 종교지도자 달라이라마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방한 허용 방침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외교부 관계자는 "탕자쉬안 중국

현대 만평

박구원

신앙도 조기교육

아셈포럼 종교분과 28일 사전준비 워크숍

2000 아셈 민간단체포럼 종교분과는 8월 28일 오후 2시 서울 천도교 수운회관 9층 회의실에서 '종교간 대화와 관용의 실현을 위한 한국 종교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사전준비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사전준비 워크숍은 10월 13~18일 개최 예정인 아셈 민간단체포럼 종교분과의 국제심포지움(10월15일)을 위한 국내 참가 단체들의 한국 문제에 대한 공동인식 및 본 행사 주제 정리, 한국의 종교간 대화와 관용의 실태 및 문제점 파악,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재경 기자

"일산병원 6개월내 손익맞춰"

동국대 송석구총장

송석구 동국대총장은 7월 25일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에 출석, "현재 건립중인 일산병원을 예정대로 2002년 7월 개원, 6개월 내에 손익분기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불교대학 발전 방안' 관련, 송 총장은 "우수교수 유치에 위해 외국대학 학위취득자에게도 임용을 개방하면 동국대의 중추대학으로서의 위상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송 총장은 또 종립학교관리위원회에서 요청한 재무제표 등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재단 소관 사항이므로 권한이 없다. 무리한 요구를 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송 총장의 출석, 보고에 대해 종립학교관리위 산하 종립학교발전연구 소위원장 영담스님은 "총장이 출석해 보고한 것은 긍정적이었으나, 보고 자료가 충실치 않아 실망스러웠다"고 평가하고, 일산병원 건립과 관련, "전문가와 함께 학교를 방문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

공 고

본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불선교종은 일불선교종에서 한국불교의 세계화 세계불교의 통일 그리고 한국불교 제종파의 원용화합통일과 남북평화통일 및 위국애민하는 호국불교의 바탕을 세우기 위해서 오랫동안 그 위대한 이상을 실현하며 조계종 근본 도량까지 박차고 나와 중단을 창종하고 세계불교법왕칭 설립의 등량을 삼은 종지종풍이 뚜렷한 중단이다.

또한 종도의 모임을 함께 보호육성 발전시키고 나아가 영구 보존하기 위한 방편으로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불선교종을 등록 취득하고 그간 10여년간 종지종풍을 선양해 왔다. 그런데 불해 현기홍 전종정과 그 주변 권속승들은 일불선교종 열반후 전제적 종진 쟁탈전으로 종도들을 분열시키다가 一九九九年 十二月 二十三日 종정의 특권을 악용 중단 모든 기구를 해산하고 자기들 추종자 몇명을 중심으로 중단을 재구성하더니 지난 二千年 五月 二日 우리 일불선교종의 구성체인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불선교종을 불법적으로 해산시켜 버리고 오직 자기들 몇몇의 독선적 이기적 임의단체인 소위 대한불교 일불선교종으로 종명을 바꿈으로서 더욱 중단을 갈등과 혼란속으로 몰아넣고 말았으니 실로 부처님과 일불선교종과 일불선교종들이 다함께 통곡할 일이 아니겠는가. 이에

결 의 문

오늘 우리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불선교종 전 종도들은 불기 2544년 7월 18일 14시를 기해 본종 총무원 원사인 서울 종로구 신영동 일불선원 큰법당에서 승가법에 의해 전국종도대회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우리 전 종도들은 창종주 일불선교종 본종의 유지와 심법을 계승하고 범종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하여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불선교종을 수호하고 독선과 권속승들에 의해 해체, 소멸된 재단법인 중단을 재건하기로 결의한다.
- 우리 전 종도들은 재단법인 중단을 파탄시킨 현기홍 전 종정과 그 추종자들에 의해 구성된 장연종 총무원장체제를 인정하지 않으며 一九九九年 十二月 二十三日 이전의 재단법인 일불선교종 본래의 전통체제인 정승스님 총무원장 체제로 환원시키기로 결의한다.
- 우리 전 종도들은 자기 정상적인 중단체제가 확립될 때까지 총무원장 중심체로 개정 공포한 一九九六年 八月 三十一자 종헌 중법을 채택 중단을 재구성하고 중단 활성화 추진위원회(중단법통수호대책위원회)가 정승스님 총무원장 체제를 보좌해 나갈 것을 동의하고 결의한다.
- 우리 전 종도들은 二千年 七月 四日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불선교종 이사회 회의에서 중단파탄의 책임을 물어 이사장 현기홍(봉해)스님을 불신임 결의한데 대하여 적극 환영하며 절대 지지할 것을 결의한다.
- 우리 전 종도들은 종정으로서 권속과 독선으로 재단법인 중단을 해체하고 임의 사유중단으로 변종시키고, 혼란과 갈등 분파와 제적으로 중단을 파탄지경으로 몰고 간 현기홍 전 종정을 불신임 결의하고 출중할 것을 결의한다.
- 우리 전 종도들은 종정의 독선과 종령을 앞세워 영구 종진 장악을 위해 재단법인 중단을 임의단체 종헌, 종법으로 개정적임한 실무자요, 화두청산 데이프사건, 신사상 연구 책자 발행 사건, 백두산 미륵봉 조성 사건 등을 야기시켜 중단의 위신을 실추시키고 도탄에 빠지게 한 도화 주수용을 처벌 도청할 것을 결의한다.
- 우리 전 종도들은 재단법인 중단을 해체하고 임의단체 종헌, 종법으로 개정하는데 적극 동조하고 또한 종정의 유시와 종회의장의 명의로 실시한 중단 감사 결과 보고서를 외부에 유출시킴으로서 중단을 갈등과 혼란 속으로 몰고 간 동명 정동섭, 현각 오인석, 진소 김성환, 무정 김만석, 혜탄 등을 처벌 도청하고 봉암 장연종 스님을 2년간 공권 정지 할것을 결의한다.
- 우리 전 종도들은 2000년 7월 18일 이후 임의단체인 현기홍 집단관계자들의 본 중단 출입과 본종 사무실 및 건물 사용을 일체 금지할 것을 결의한다.
- 우리 전 종도들은 현기홍 전 종정 집행부에서 본년도 모르게 아무런 사유없이 임의로 제적시켜 놓은 전 원로회의 부의장, 교육 원장, 종정 사서실장, 고시원장 등을 역임한 서무공 스님의 승적을 우리 전 종도들이 본래대로 환원을 시켜 놓을 것을 결의한다.
- 우리 전 종도들은 부처님의 혜명을 받은 불제자로서 불교와 중단과 종도를 위해 승가 본연의 자세에서 화합 단결하여 원칙과 규정이 통하는 정법행정 구원으로 참 수행 교화 중단을 만들 것을 결의한다.

※ 종도대회 동행 종도수 三二三名(경향 추산 접수 二七〇 여명 + 주최측)으로 전 종도의 약三分의二이상 동참(연락 및 관망자 다수 분참) 결의한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二千年 七月 十八日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불선교종

법통수호·중단재건·정법구현 전국종도대회 중단법통수호대책위원회
대회장 위원장 서무공 종정권한 대행 유청송 총무원장